



금주의 농사 메모

기 간 2024년 1월 29일 ~ 2024년 2월 4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요 약

벼농사를 위한 볍씨 준비와 토양관리, 감자 시설재배 수확시기 감자터짐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, 마늘·양파 추비, 병해방제시기를 점검하고, 과원의 전정 전 꽃눈분화율 확인, 겨울철 가축의 질병예방을 위한 보온관리에 힘써야 한다.

1 벼농사

- ✓ (볍씨준비) 자가 채종한 농가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.
- ✓ 신품종으로 바뀌 재배하거나, 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재배할 농가는 품종의 적응지역, 시비량, 병해충 등 재배 특성에 유의하여 품종을 선정한다.
- ✓ (토양관리) 물빠짐이 너무 좋은 사질토나 물빠짐이 나쁜 점질토에서는 객토에 의해 토양 조건을 개선하여야 벼의 생육 및 미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.
- ✓ 보통논, 미숙논은 퇴구비를 시용하고 18cm이상 깊이갈이를 실시해주며, 볏짚 또는 퇴구비를 시용하지 않은 논은 볏갈이 해주는 것이 좋다.
- ✓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양하는 보급종 외에 특수미 품종이나 신품종 재배를 원하는 농가는 아래의 기간에 시군농업기술센터 통해 신청해야 한다.
 - 신청기간 : 1. 17. ~ 2. 14.(4주간)
 - 신청방법 : 농업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
 - 보급품종 : 밥쌀용(미호, 백진주, 예찬, 진옥, 참동진, 새일품, 새칠보, 성산), 찰벼(미르찰, 보람찰, 백옥찰, 운일찰), 사료용(목양, 영우)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경근(☎.055-254-1812)

2 밭작물

- ✓ (감자) 겨울 시설재배는 주간에 환기와 야간에는 보온에 유의해야 하며 토양수분 관리가 중요한데, 가온을 하지 않고 2~3겹 비닐로 보온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비닐커튼 등으로 보온하고 생육 초기부터 중기까지 시설 내 주간온도를 강제 환기팬을 설치하여 조절하고,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생육과 덩이줄기 비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토양수분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.

- ✓ 시설감자 수확시기 감자터짐(실금) 예방을 위해서는 수확 10일경 전부터는 물 주기를 중단하고, 수확 하루 전 미리 줄기를 뽑거나 순치기를 하면 뿌리 수분흡수가 차단되어 덩이줄기 내부팽압 상승을 막고 감자껍질의 큐어링이 촉진되어 감자터짐을 예방할 수 있다.
- ✓ (고구마) 고구마 재배를 위해 10a에 필요한 묘는 4,500~7,100본 정도이고 매화 1,500~2,200본의 싹을 생산할 수 있는 씨고구마를 준비해야 하는데, 씨고구마 1kg에 묘 생산량은 20~30개이므로 10a에 필요한 양은 75~100kg 정도이며, 씨고구마에 전염되는 검은무늬병, 건부병, 검은점박이병, 덩굴쪼김병 등의 예방을 위해 침투성 살균제로 소독하거나 온탕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✓ 고구마 조기재배유형

구 분	육묘상 설치	삼식기	수확기
남부 - 비닐하우스	1월 하~2월 상순	3월 하순	6월 하~7상중순
남부 - 비닐피복	2월 상순~중순	4월 상~중순	7월 하~8중순
남부 - 비닐터널	2월 상순~중순	4월 상순	7월 상~8상순

- ✓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양하는 발작물 신품종 재배를 원하는 농가는 아래의 기간에 시군농업기술센터 통해 신청해야 한다.
 - 신청기간 : 1. 17. ~ 2. 14.(4주간)
 - 신청방법 : 농업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
 - 보급품종 : (콩) 대왕2호, 대찬, 대풍2호, 미소, 미풍, 선풍, 장풍, 선유2호, 신바람, 세움, 청자5호 (팥) 홍다, 홍미인 (녹두) 산포 (들깨) 다유, 들샘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류선미(☎.055-254-1813)

3 채 소

- ✓ (노지채소) 난지형 마늘·조생종 양파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 곧바로 웃거름을 주도록 하되 생육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하여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✓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 서릿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땅에 잘 눌러주거나 흙 덮기 실시하고, 연약하게 자란 포장이나 물 빠짐이 불량한 곳에서 노균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월부터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.
- ✓ (시설채소)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 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덮어서 보온력을 높여주며, 낮에는 환기를 알맞게 실시하여 과습 예방 및 이산화탄소(CO2)가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✓ 또한, 온실화재는 전기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난방기, 보일러, 전선, 유류배관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최병걸(☎.055-254-1822)

4

과 수

- ✓ (병해방제) 과수는 영년생 작물로 월동기 방제의 개념이 필요한데, 전년도에 발생된 나무줄기, 거친 껍질, 낙엽 등에서 월동하고 있는 병원균을 제거하여 밀도를 낮추어 주면 생육기에 방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.(월동처가 되는 전년도 낙엽과 가지를 제거하고 거친 껍질을 벗겨 주며 석회유황합제 등을 살포하여 광범위한 보호 효과 기대)
 - ✓ 과수화상병 등 주요 병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 사용하여야 한다.
 - ✓ 병해충 등으로 오염된 흙이 작업자의 신발 등의 매개로 인하여 기존 오염되지 않은 과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하여야 한다.
 - ✓ 사용한 전정가위는 반드시 철저히 소독하고, 과원마다 전정가위를 따로 구비하여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농작업을 하는 사람(작업단)의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를 반드시 소독하도록 한다.
 - ✓ 2024년 사과 주산지 평균 꽃눈분화율 조사결과 홍로 75%, 후지 54%로 조사되어, 홍로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후지는 낮고 조사지점 간 편차 커서 농가에서는 과원의 꽃눈 분화율 확인 후 동계전정 작업량 결정 필요하다.
- ★ 꽃눈분화율 60% 미만 시 가지치기 ↓, 65% 이상 시 가지치기 ↑

<2024년 사과 주산지 꽃눈분화율> * 6지역 9지점 평균값 * 평년: 2014~2023

◆ 홍로 75%(평년대비 +7%), 후지 54%(평년대비 -7%)

※ 사과원 꽃눈분화율 구간별 동계전정 기준

꽃눈분화율	동계전정 작업량 결정
60% 미만	가지치기 ↓ (열매가지 확보)
60~65%	평년과 유사하게 실시
65% 이상	가지치기 ↑ (불필요한 꽃눈제거)

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형준(☎.055-254-1823)

5

축 산

- ✓ 겨울철 극심한 축사 내·외부 온도차 등에 대비하여 축종 및 축사시설에 따라 축사 내부 환경관리(청결) 및 방풍·보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✓ (한우)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증가하므로, 사료급여량을 늘리고, 송아지는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 예방을 위해 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.
- ✓ (젓소)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 및 축사 바닥 청결관리 유의해야 한다.
- ✓ (돼지) 일교차가 5℃ 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유의하고,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자돈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- ✓ (닭) 20℃ 이하 환경에서 1℃ 낮아질때마다 사료 섭취량이 약 1%씩 증가하므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.
- ✓ 겨울철에는 가축의 온도 관리를 위하여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므로 전열기 및 전기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축사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관리에 신경써야 한다.
- ✓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, 내부관리 철저,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,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정맹금(☎.055-254-1833)